

논평에 대한 답변

논평자가 표현하려고 애쓰는 불만의 대부분은, 발표문에 대한 논평자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오해는 논평자가 여러 번 주장하는 것으로, 발표자가 규칙들에 대한 설득적 정당화를 포기하고 설명적 정당화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표자의 기본태도와 동떨어진 입장일 뿐 아니라, 발표문의 어디에도 논평자의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구석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논평자의 주장이 정당화 되려면,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향한 논증이 제시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 기본적인 추론규칙들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는, 논쟁에 참여한 패거리들이 자기 편 끼리만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뿐 - 이것이 설명적 정당화의 역할이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다른 편과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 - 이것이 설득적 정당화의 역할이다 - 가 있을 수 없다. 만약 발표문이 그런 논증을 제시했었다면, 그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에 관한 심오한 함축을 지녀서, 발표문은 발표자가 생각치도 않은 커다란 철학적 의의를 지녔을 것이다. 발표자가 아이러니컬하게 느끼는 것은, 논평자가 오해한대로 발표문이 이런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논평자의 (오해한 입장에 대한) 평가와는 반대로, 부조리한 실존적 삶에 대한 지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발표문은 논평자의 오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철학적 가치를 지닌 논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발표자는 (아마 논평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규칙들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희망과 신념과 느낌표들로는 설득적 작업을 할 수가 없기에, 발표자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논증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검토하고, '증명이론적 정당화'라는 정당화 논쟁에서 어느 정도 중립적이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논평자는 이런 정당화 논증이 연역적 추론에 의거한 지식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증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런 정당화 논증이

실용주의와 상식에 호소하고 있다는 부당한 '과잉 칭찬'을 하고 있다. 발표자가 보기에 증명이론적 정당화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발표자가 이해하는 바 논평자가 생각하는 다른 입장들의 배제를 전제하는 것도 아니다.